

은퇴설계를 위한

# 하나 행복가이드

국내 시니어 창업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국내 연금담보 대출 동향 및 함의





# Contents

이슈 포커스	국내 시니어 창업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국내 연금담보 대출 동향 및 함의	1
경제 트렌드	수출의 내수견인력이 약화되고 있다 채권시장,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선반영 외환시장의 변동성 위험요인 부상에 유의 주식시장의 상승 모멘텀은 당분간 약화될 전망	9
노후 재무 설계	금융사 재직 B씨, 높은 노후생활비 대비 순금융자산 확대 요구 금융자산은 수익성보다 안정성 중심의 배분 전략이 유효 투자상품은 국고채 및 채권형 펀드 등 안정형 위주 상품으로 구성	17
국내외 단신	2013년 401(k) Plan의 서비스, 수수료, 비용에 대한 분석 고령층의 경제활동에 관한 부가조사 결과 발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실시	20
상품브리프	생애주기로 자산을 배분하는 라이프사이클 펀드(Lifecycle Fund)	24
부동산 따라잡기	상가, 중소형 오피스 위주로 수익성 부동산 투자 지속	26
행복한 노후디자인	일교차 심한 환절기의 건강 예방 및 관리	28
하나뉴스	하나금융그룹, '행복knowhow' 브랜드 선포 등	30
연금통계		31

## “ 국내 시니어 창업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

연구위원 정희수  
(heesoo\_jung@hanafn.com)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최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시니어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시니어 창업을 위해 시니어 창업스쿨, 시니어 비즈플라자, 시니어 커뮤니티, 시니어 CEO 맞춤형 지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창업 정보 제공, 실습과 체험 중심의 창업교육, 창업 자금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니어창업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 과거 경력의 활용도 제고, 창업과 자기계발의 연계성 강화, 고령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등이 필요하다.”



**국** 내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50세 이상 고령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내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는 이미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질 경우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은퇴 세대의 재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50대 중반에 은퇴한 후 새로운 직장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고용(self-employment) 형태인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점차 시니어창업은 정부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예산도 매년 증액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 고령층의 경제활동 현황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니어창업 지원제도를 살펴본 후, 향후 제도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최근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

최근 사회적으로 고령층의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50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5년 44.7%에서 2013년 48.1%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50대 고용률은 2005년 68.1%에서 2013년 73.1%로, 60대 고용률은 2005년 53.4%에서 2013년 57.2%로 개선되는 추세이다. 이는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시니어창업이 활성화되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과거에 비해 더욱 활발해진 것에 기인한다. 여기서 시니어창업이란 청·장년기에 취업활동을 하다가 퇴직한 50대 전후의 개인이 창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니어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나 베이비붐 세대를 전후한 50세 이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2010년부터 시니어의 개념을 은퇴했거나 은퇴예정인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니어창업은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50세 이상 신설법인 비중을 보면 2008년 26.7%에서 2014년 1~8월 33.6%로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25.3%에서 29.8%로 증가하였다. 시니어창업이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시니어창업은 과거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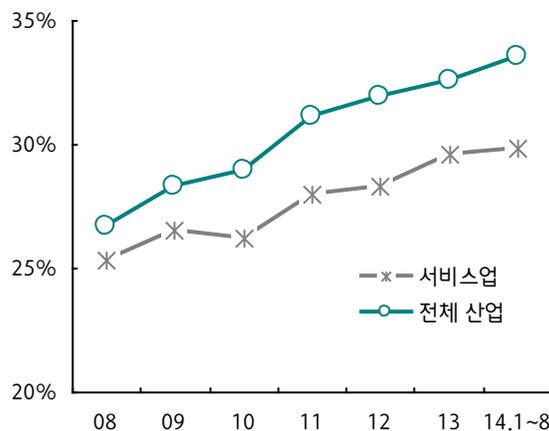
시니어창업은 청장년 창업과 달리 안정적인 수익(low risk, low return)을 지향하는 특성을 가진다. 생계형 창업이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에 민감한 업종 중심으로 창업하기 때문에 실패 확률도 높은 편이다. 과거의 경력,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과거 경력과 연관성이 낮은 업종을 선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니어창업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첫째, 경력 개발형이다. 창업을 통해 새롭게 경력을 쌓기 위해 창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둘째, 과거 경력과 다른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력 전환형이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본인이 주도하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귀농형이다. 귀농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 있으나, 농사일에 대한 지식 부족에 따른 투자실패에 노출될 수 있다. 넷째, 사회참여형이다. 종교 및 사회봉사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섯째, 장기간 수행해 온 취미활동을 창업으로 연계하는 취미발전형이다. 취미활동 중에 축적된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창업하기 때문에 성공확률이 높다

### 정부에서도 시니어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시니어창업을 위한 지원제도는 시니어 창업스쿨, 시니어 비즈플라자, 시니어 커뮤니티, 시니어 CEO 맞춤형 지원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청장년층 창업과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 시니어창업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시니어 비즈플라자, 창업역량 강화 교육 등 시니어창업 관련 예산도 47.3억원에 이르는 등 과거에 비해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시니어 창업스쿨과 시니어 비즈플라자의 신청절차는 창업넷 홈페이지(www.changupnet.go.kr)를 통해

### 50세 이상 신설 법인의 비중



| 자료 : 중소기업청

### 시니어창업의 유형

구분	주요 특징
경력 개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체적인 경력 목표 설정</li> <li>창업시 면밀한 시장 조사</li> </ul>
경력 전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환 비용이 큰 편</li> <li>창업자 본인 주도형</li> </ul>
귀농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농 전 토지 구매 관련 정보 확보</li> <li>사업성보다 귀농에 대한 높은 만족도</li> </ul>
사회 참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교 및 사회봉사 커뮤니티 활동</li> <li>자격증, 복지시설 체험 중요</li> </ul>
취미 발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간 취미생활에 따른 높은 숙련도</li> <li>“관심분야=창업분야”에 따른 동기부여</li> </ul>

| 자료 : (사) 한국소호진흥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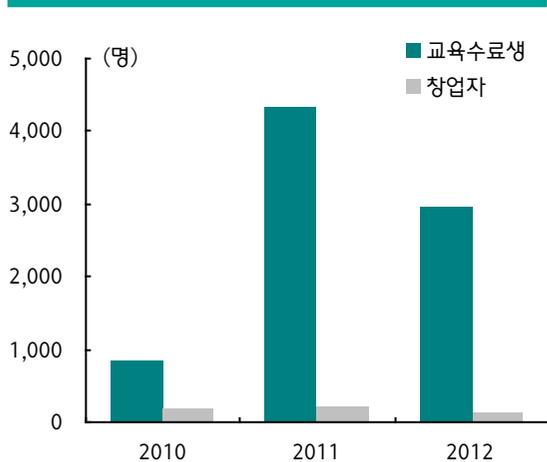
간소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은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시니어창업 지원제도는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실무적인 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1. 시니어 창업스쿨

2011년 3월부터 시행된 시니어 창업스쿨은 퇴직인력의 경력, 특기, 희망진로 등을 진단하여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시니어 창업스쿨은 대학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현재 2개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총 25개이고 1개 기관 당 3~5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본 제도는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과 체험 중심의 실전형 창업교육이며, 창업 후 조기정착을 위한 추가 코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총 이수 시간은 80시간이고 수강생 1인당 100만원 내외의 교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본인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 동안 총 8,069 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이 중 창업실적을 보인 비중은 5.8% 수준을 기록하였다.

2. 시니어 비즈플라자

시니어 창업스쿨 지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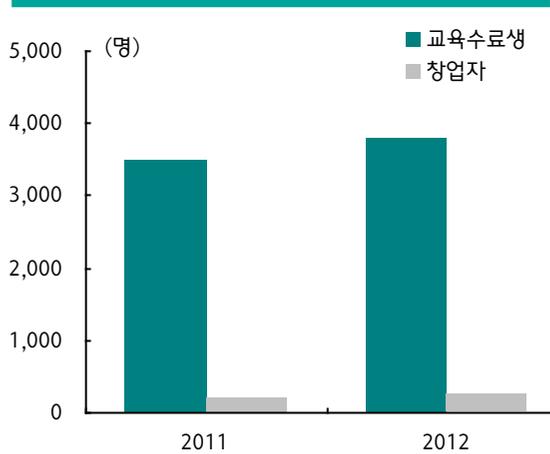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시니어 비즈플라자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사무 공간, 기술창업과 관련된 교육, 상담,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센터를 의미하며, 정부 주도의 공공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성공한 CEO, 비즈멘토 아카데미 졸업자 등으로 시니어 비즈플라자 자문단을 구성하여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대상은 만 40세 이상의 전문경력을 보유하고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창업교육 우수 수료생에 대해 시니어창업전용자금을 지원하거나 지역신보보증과 연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14년 6월 현재 시니어 비즈플라자는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12개 지역에 걸쳐 17개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설립 초기인 2011년에 7개를 시작으로 2012년 4개, 2013년 2개, 2014년 5월에 4개를 추가로 설립하였다. 2011년에서 2012년까지 2년 동안 총 7,282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이 중 창업실적을 보인 비중은 6.1% 수준이었다.

3. 시니어 커뮤니티

정부는 시니어 비즈플라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각종 창업 관련 행사 등 정보 교환과 상담 기능을 강화하였다. 커뮤니티 활

시니어 비즈플라자 지원 실적



자료 : 중소기업청

동이 실질적으로 창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활동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중 에듀시니어의 회원 수는 384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경제연구원과 유머 메디컬 센터가 각각 237명, 203명의 회원 수를 기록하고 있다.

#### 4. 시니어 CEO 맞춤형 창업지원

본 제도는 시니어 적합 창업분야(6개 분야 40개 업종)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분야는 컨설팅, 지식서비스, 스포츠·레저, 실버도우미, SNS, 귀농서비스, 농·특산물 재배 및 가공, IT서비스업, 지역사회 서비스, 복지지원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사업 내용은 창업 준비 공간 및 창업교육 제공,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창업 네트워킹, 사업화 자금(2,000만원) 지원 등 창업준비를 위한 단계별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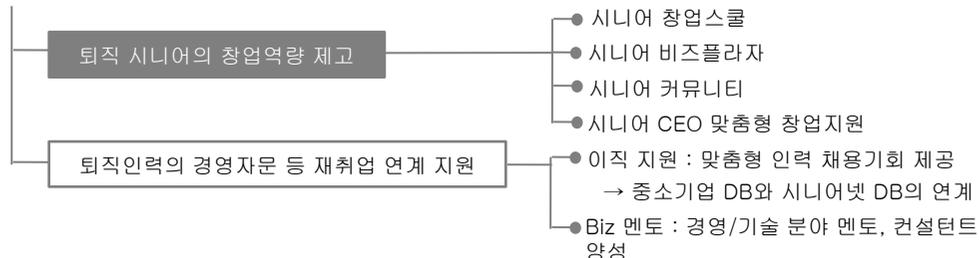
###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와 함께 은퇴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필요

시니어창업 지원제도의 성과를 보면 창업을 위한 사전 교육차원에서는 성공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는 비중은 예상보다 낮은 편이다. 이러한 양

적인 성과보다 정부차원에서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에서 시니어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과 함께 창업 지원을 동시에 확대해야 한다. 즉, 고용 연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정책과 함께 시니어창업 지원이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와 함께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시니어창업스쿨이나 시니어 비즈플라자 등의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창업 노하우, 컨설팅 역량 등을 공유하고 창업 시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니어창업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정책수립 시 시니어 계층의 특성과 직업에 대한 인식변화를 반영하고, 과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과 자기계발을 연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세대별, 전문분야별로 차별화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넷째, 시니어창업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예비 은퇴자들도 손쉽게 창업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관공서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시니어창업 지원제도를 알려야 한다. 창업을 원하는 고령층도 이러한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니어 창업제도를 통해 새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 시니어 창업 지원제도 체계

#### 시니어 일자리 창출





## 국내 연금담보 대출 동향 및 함의



수석연구원 강 미 정  
(ashleykang@hanafn.com)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퇴직 연금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금 담보대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민연금 등의 연금담보대출은 활성화 되고 있지만 퇴직 연금 담보대출은 전혀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향후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활성화돼 일시금 인출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담보대출 가능사유에 연금가입자들의 니즈가 잘 반영되어 개선되고, 금융사들이 상계권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출자들의 편의성 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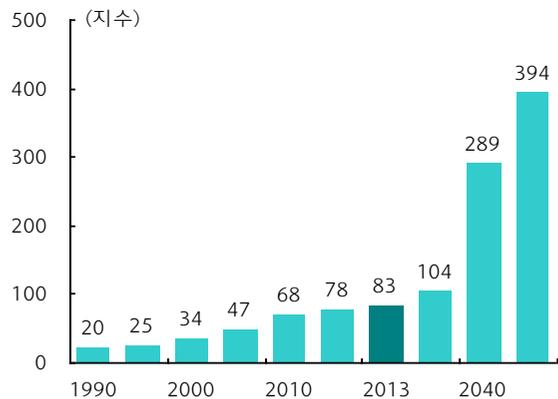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노령화지수는 2013년 기준 83.3으로 이는 유소년인구(0~14세) 100명 당 65세 이상 고령자가 83명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에 이르면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빠른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후 소득보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사적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20% 수준으로 국제 권고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책 당국은 지난달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퇴직연금의 노후 안전판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금화 유도를 위해 개인연금 장기간 유지 시 운용수수료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중도 해지 등을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도 퇴직연금 담보 대출이 있기는 하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본 자료에서는 현재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담보대출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사적연금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국내 노령화지수 추이 및 추계결과



| 주 : 노령화지수=(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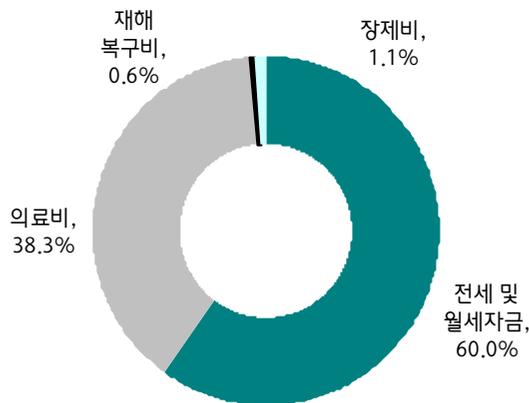
## 국민연금 실버론을 통해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들에게 긴급생활안정 자금 지원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2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으로 노후간급자금 대부사업인 국민연금 실버론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의료비와 배우자 장제비, 전세 및 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부 한도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로 최고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상환은 5년간 원금 균등분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실버론 이자의 경우 매년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 변동금리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복지사업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2013년 실버론 금리는 평균 2.92%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시중 금융기관 금리(4.19%) 보다 낮다.

지난 3년 간 (2012년 5월~2014년 5월) 국민연금 실버론을 통해 제공된 대출 규모는 약 800억원 규모이며,

### 국민연금 실버론 용도별 현황



주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버론을 이용한 연령대는 60~69세가 93%로 가장 많고, 대출 자금의 약 60%가 전세 및 월세 자금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목적의 대출은 38%, 배우자 장제비는 1%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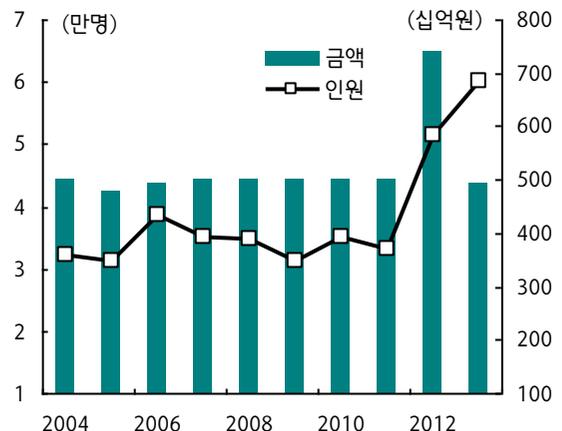
국민연금 실버론은 소득과 신용도 등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고령의 연금 수급자에게 대출 기회를 확대해줌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시중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부 신청 후 대부분(94.2%)을 신청 다음날까지는 지급하고 있어 대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외에도 2013년 연대보증 및 보증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하며 연금 수급자들의 실버론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2015년도 국민연금 실버론의 사업규모는 총 270억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이자율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2014년 2/4분기 기준 3.20%)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 공무원연금 대출은 4%대 금리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을 대상

### 공무원연금 대출 현황



주 : 공무원연금공단

으로 다양한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및 연금대출, 가계자금 융자알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5월 부터 퇴직급여의 50% 범위 내에서 1인당 최고 2,000만원(신용등급 1~8등급)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3자녀와 미취학자녀 양육,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전세자금 대출 등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신용등급이 9~10등급인 신용불량 등급자는 각각 퇴직급여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과 500만원까지로 대출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가계대출 금리와 국고채 5년물을 기초로 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2014년 10~12월까지의 대출 금리는 기존 4.04%에서 3.93%로 조정되었다. 상환 기간은 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장 7년으로 간편이며 대출 횟수는 신규 또는 재대출에 관계없이 회계연도 중 1인당 1회로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대출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2013년에만 약 6만 여명이 4,933억 원의 대출을 제공 받았다. 대출 재원은 공무원연금 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2014년 대출 자금(6,500억 원)이 소진되어 마감된 상태이며 2015년 1월 중순 재개될 예정이다.

### 사학연금공단은 생활자금과 국고학자금, 금융기관 알선 대출 등의 사업 실시

사학연금공단에서는 생활자금과 국고학자금, 금융기관 알선 대출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생활자금을 위한 대출은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 및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교직원은 퇴직급여 50% 범위 내에서 최대 7,0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율은 3개월 변동금리로 연 3.92%(2014년 10~12월)가 적용되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금액에 따라 최소 3년 이내에서 최대 13년 이내까지 상환이 가능하다.

금융기관 알선대출의 경우 공단과 금융기관 간의 협약을 통해 이뤄지는데 필요한 교직원은 퇴직급여 예상액을 담보로 해당 금융기관 각 지점에서 저리로 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사학연금공단과 체결한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와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이다.

대출 가능 금액은 신규대출의 경우 퇴직금 예상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천 만원까지이다. 대출 금리는

###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대출 사업 비교



	국민연금 (국민연금 실버론)	공무원연금 (연금대출)	사학연금 (생활자금 대출)
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 및 연금 수급자
대출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500만원 이내)	퇴직급여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 만원	교직원 : 퇴직급여 50% 범위 내에서 최대 7,000만원
금리	2.92% (2013 연평균)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근거한 변동금리	3.93% (2014.10~12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국고채 5년물에 근거한 변동금리	연 3.92% (2014.10~12월) 3개월 변동 금리
상환 방식 및 기간	5년간 원리금균분할방식	금액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장 7년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최소 3년에서 13년

| 주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

금융기관의 기준금리(MOR 연동금리 또는 COFIX 연동금리)에 4.2% 범위 내에서 가산한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각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이다. 상환 방법은 일시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 중 교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으나 퇴직 또는 사망, 다른 금융기관에서 동일 종류의 대출 신청이 확인될 때에는 대출 기한 이전에 즉시 대출금이 회수된다.

### 현재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엄격한 제한 및 법령상 제약 등으로 실적이 전무

현재 국내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퇴직연금의 중도해지를 방지하고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현재 근퇴법령에 따라 담보대출 사유를 주택구입, 의료비, 파산선고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타 연금담보 대출의 경우를 보면 연금가입자들은 대출용도로 전세 및 월세 등 보다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 나아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민사집행법상의 상계권 제한으로 인해 퇴직연금이 완전한 담보가 될 수 없어 사실상 담보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

### 퇴직연금 권역별 일시금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은행	생보	손보	증권
일시금	27,905 (96.8)	7,050 (97.4)	3,948 (98.7)	3,734 (97.3)
연금	935 (3.2)	186 (2.6)	52 (1.3)	104 (2.7)
합계	28,840	7,236	4,000	3,838

주 : 55세 이상 퇴직자, 자산관리계약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현행 퇴직연금 담보대출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퇴직자 중 대부분(97%)은 일시금이 필요할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보다는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담보대출 가능 사유에 대출 수요자들의 니즈가 큰 전세자금 용도 대출 등도 포함 필요

정부는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을 방지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히 중도 해지 없이 목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담보대출 및 상품 등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향후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활성화되고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당국은 현행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근퇴법령과 민사집행법의 상충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퇴직연금이 완전한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계권의 제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근퇴법령에서 담보대출 사유를 이번 개선안에서 학자금, 긴급 생계비 등으로 확대하였지만 연금가입자들이 이용하기를 원하는 전세 및 월세 등까지로 범위를 확대해 보다 더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 혜택의 마련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들은 대출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한 차별화된 담보대출 상품 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들은 시중 금융기관보다 낮은 금리, 빠른 대부 절차, 처리기간 단축 등의 이유로 대출 이용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대출자들에게도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어 이후 등급별로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상품 마련이 필요하다.



## 수출의 내수견인력이 약화되고 있다



연구위원 김 영 준  
(kimekono@hanafn.com)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교역 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와 원화강세로 우리나라 수출의 상대적인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수출의 수입 의존도 심화, 해외투자 확대,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 저하 등으로 수출과 내수간의 연계성도 약화되고 있다. 소비재 및 서비스수출 확대로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투자 유인과 수입 자본재 및 중간재의 국산화 유도 등으로 수출과 내수간의 연계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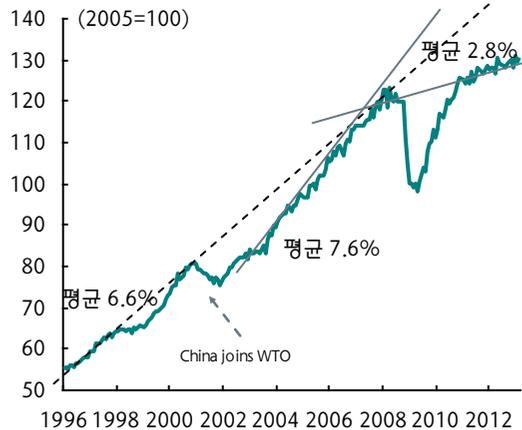


세계 경제가 2011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GDP 성장률이 세계 GDP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등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차별화되는 첫 번째 원인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가계부채 부담과 세월호 사고 등으로 내수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출 증가세가 과거에 비해 부진하고 수출의 내수 견인력이 약화된 것도 국내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 글로벌 교역량 증가세가 절반 수준으로 둔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부진이 심화

우리나라의 수출이 과거에 비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교역 증가율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교역량은 2002년 이후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과 글로벌 성장세 가속화 등에 힘입어 연평균 7.6% 증가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제조업의 선진국 회귀(reshoring),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원유교역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평균 2.8% 증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시기별 세계교역 증가율 비교



자료 : cpb.nl

### 한국을 둘러싼 수출환경의 부정적 변화 진행

눈여겨볼 대목은 2013년 이후로 글로벌 교역량 둔화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 둔화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는 한국을 둘러싼 수출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다. 중국은 지도부가 교체된 이후 도시화·민영화·자본 개방 등에 중점을 둔 개혁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양적 위주에서 질적 위주로 성장모형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로 對중국 수출환경이 악화되면서 전체 수출회복세가 저조

이로 인해 무역부문에서는 가공무역 비중축소, 수출입 구조의 고부가가치화, 교역상대국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 구조가 기존의 자본재·소재 위주에서 소비재 및 원자재 수입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모형 전환과 교역구조 변화 때문에 대중(對中) 수출 중 중간재와 자본재의 비중이 97%에 달하는 한국의 수출이 고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성장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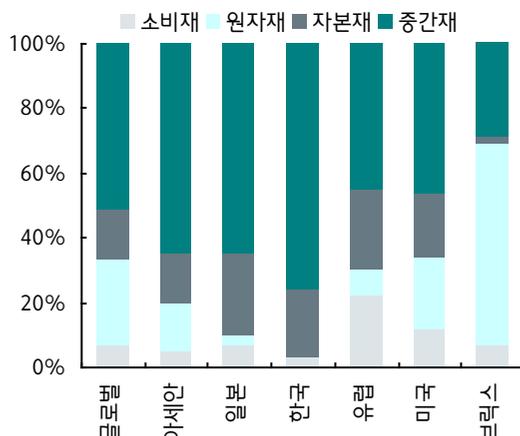
전환과 교역구조 변화는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對중국 수출구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환율하락으로 인한 가격효과와 물량효과로 수출기업의 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약화

최근 심화되는 원화강세도 수출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금융위기 직후 1,500원까지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000원선으로 추락,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대외 신인도 개선 등에 힘입어 최근 원화는 강세를 이어 가고 있다. 반면 경쟁통화인 일본 엔화는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로 2012년 이후 약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엔/달러 환율이 110 엔을 넘나들고 있다. 원화 가치 상승과 엔화 약세가 맞물려 수출기업의 채산성과 수출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환율하락이 불러오는 가격효과로 수출기업의 채산성은 악화되기 마련이며, 수출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량효과는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감

### 對중국 수출의 재화별 비중



주 : 2010~11년 기준  
자료 : UN Comtrade, BOK 이슈노트 NO. 2012-4에서 재인용

### 원화 절상률과 수출 증가율 추이



주 : 원화 가치는 원화 실질실효환율(REER) 기준  
자료 : BIS,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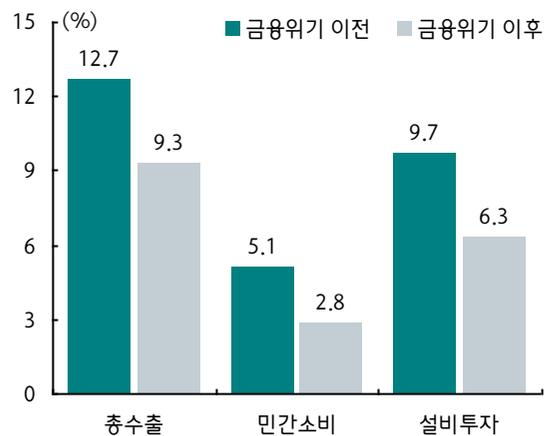
아먹는 법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무역협회 조사("최근 환율 하락의 수출기업 영향", 국제무역연구원, 2014.7)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86.8%가 환율하락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경험했고 28.6%는 수출물량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환율변화에 따른 가격 전가율이 낮고 국내 생산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이 한층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원/엔 환율 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총수출 변화를 회귀분석해 본 결과 원/엔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1분기 이후 우리나라의 총수출이 3.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노믹스와 달러화 공급우위 환경 지속, 그리고 대외신인도 개선 등으로 원/엔 환율 하락이 계속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악화와 수출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 수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수출과 내수간의 연계성도 약화

눈여겨볼 부분은 수출 회복이 부진하다 보니 수출이 투자와 고용을 거쳐 가계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역시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 수출 및 내수 증가율(연평균)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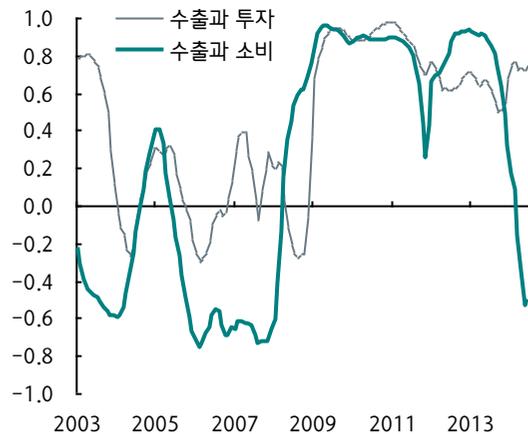
주 : 금융위기 이전은 2001~2007년, 이후는 2010~2013년  
자료 : 한국은행

잠깐 통계를 살펴보자. 2011년 이후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상관관계수가 하락한 가운데 2012년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었던 수출과 소비의 상관관계가 올해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해 수출이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력을 분석해보니, 소비에 대한 수출의 장기 탄력성은 금융위기 이전 -0.47에서 금융위기 이후 -0.59로 증가했다. 수출이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뜻이다. 투자에 대한 장기 탄력성 역시 4.22에서 -2.71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기적인 수출 증가가 내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이전과는 양상이 다르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수출의 증가로 소비가 힘을 받는 기간이 2분기에 이르렀지만, 금융위기 이후로는 기간도 1분기로 줄어든 데다 영향력의 크기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출 증가에 따른 설비투자의 반응 역시 축소됐다. 한마디로 수출 증가가 국내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민감도가 여러모로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 주력 품목 위주의 수출 성장, 고용창출능력 저하 등으로 수출 파급효과 제한적

#### 수출과 내수간 시변(Time-varying) 상관관계수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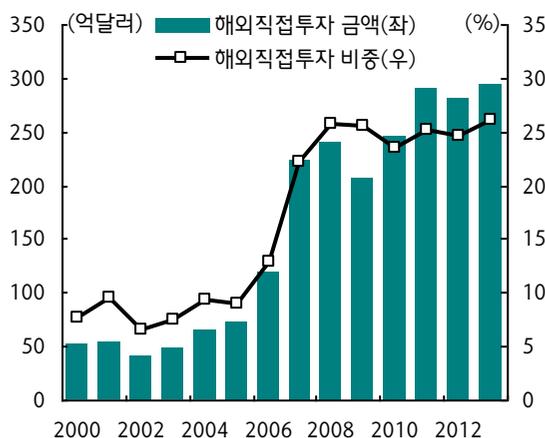
이처럼 수출의 내수 견인력이 약화된 원인으로는 ▲수출의 수입의존도 심화 ▲주력 품목 위주의 수출 성장 ▲해외투자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수출이 아무리 늘어나도 국내기업들이 생산이나 투자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IT 제품과 자동차 등은 수입 의존성이 강한 편이고, 특히 IT 사업의 경우 산업 전후방 효과가 미약하다.

더욱이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는데다 이들 산업의 자본집약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수출을 많이 해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이러한 구조가 바로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이 약화된 배경인 셈이다.

### 수출부진과 수출의 내수 견인력 약화로 저성장 기조가 심화될 우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경제의 성장 잠재력 하락이나 중국의 성장모형 전환, 원화강세 같은 변수는 앞으로 오히려 강해질 공산이 크고, 그에 따라 한국의 수출 역시 상대

#### 해외직접투자 금액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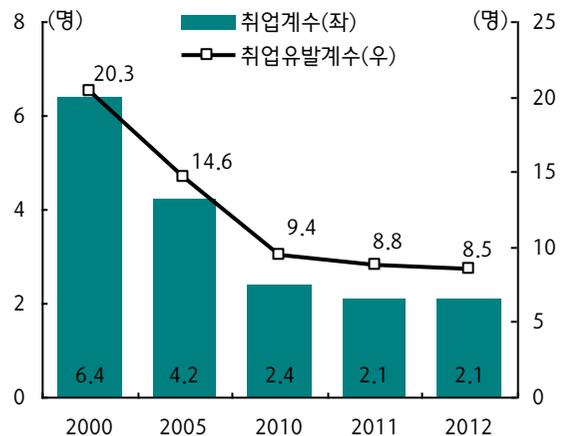
주 :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국내 설비투자 대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가계부채 문제와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한국 경제의 현실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수출의 내수 견인력까지 약화될 경우 저성장 기조가 한층 심화할 우려가 높다는 뜻이다.

### 소비재 수출비중 확대와 국내투자 유인 등으로 수출과 내수간의 연계성 회복해야

결국 현재 상황은 각 요인에 대응하는 복합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소비재와 서비스 수출의 비중을 늘려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대처하는 한편, 국내투자를 유인하고 수입 자본재와 중간재의 국산화를 유도해 수출과 내수 사이의 연계성을 회복하는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특히 K-Pop, 드라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화상품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제조업의 취업계수 및 취업유발계수



주1 : 취업계수는 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소요되는 취업자수  
주2 : 취업유발계수는 최종수요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유발인원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 채권시장,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선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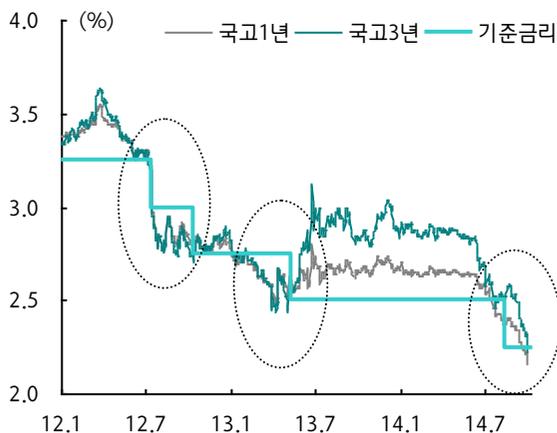


“장기금리 추가 하락 가능성 존재하나  
대외發 변동성 확대 요인에 주목할 필요”

9월 시중금리는 박스권내 등락을 거듭한 후 금통위를 계기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ECB의 조기 금리인하 등 완화정책을 배경으로 경제부총리의 추가 금리인하 주문이 강해진 상황에서, 9월 금통위에서의 금리인하 소수의견과 10월 한은의 경제전망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 등이 부각되며 금리 하락압력이 강화되었다.

다만 장기금리의 경우, 美 통화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 등에 의해 상승압력이 부각되면서 단기금리와는 차별화된 행보를 나타냈다. 그러나 9월 FOMC에서 연준이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며 10월 테이퍼링 종료 이후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사하고 ‘상당기간 저금리 지속’의 선제적 안내를 유지함에 따라

###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한 시중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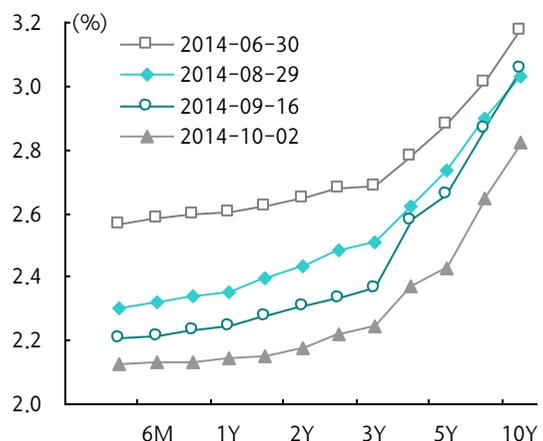
자료 : Bondweb

으나, 유럽은 경제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우크라이나發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더해져 경기회복 기대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잭슨홀에서 ECB 총재가 추가 양적완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美 연준 의장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글로벌 채권시장 강세 현상이 심화되었다.

한편 국내 경제지표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재차 하락(7월:1.6%→8월:1.4%)한 상황에서 경제부총리의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 진입 가능성 언급은 추가 금리인하 기대를 재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금리인하 효과의 불확실성, 가계부채 악화 우려, 향후 정책여력 확보 필요성 등은 추가 금리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금리 하단을 강화시키는 분위기이다. 또한 금통위 의사록에서 다수 위원들이 추가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금리인하 기대는 점차 약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뚜렷한 경제지표 개선세 확인 전까지 금리 반등 압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ECB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 가능성과 美 연준의 출구전략 논의 확대 등 주요국 통화정책의 차별화된 전개 방향은 국내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국고채 수익률 곡선의 변화



자료 : Bondweb



### 외환시장의 변동성 위험요인 부상에 유의



“대내외 여건이 원화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전고점 테스트 여부에 주목”

9월 들어 원/달러 환율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휴전 합의, 韓 CDS 프리미엄의 안정세 등에 힘입어 하락세를 지속하며 1,010원선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이후 ECB의 추가 완화책 결정으로 유로화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원/달러 환율은 반등하였다. 더욱이 9월 FOMC에서 FOMC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치가 상향되고, 새로운 출구전략 원칙·계획이 발표되면서 달러 강세가 확대된 점도 환율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 엔저 리스크, 외인 주식 매도 공세(8월 +1.8조원→9월 -0.6조원) 등도 환율 상승에 일조하며 환율은 1,050원대로 상승폭을 확대하였다.

#### 원/달러 환율 및 달러화 지수



주 : 달러화 지수는 6개 통화 기준  
자료 :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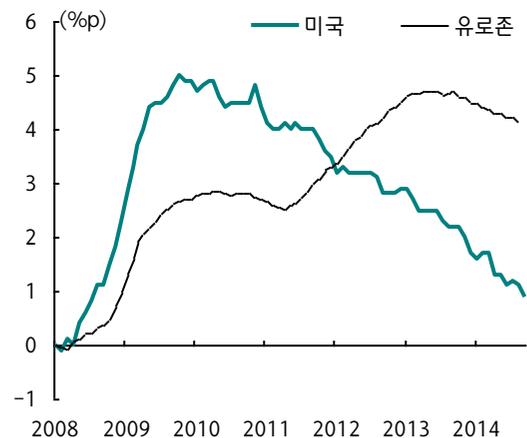
최근 美 경제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며 달러화 지수가 10.6월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10월 FOMC(28~29일)에서 QE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美 출구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디플레이션 우려 및 추가 양적완화 기대, 일본의 경기회복 난항 및 양적완화 연장 가능성 등 선진국간 경기여건 및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동성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브라질 대선 및 아르헨티나 부채협상 난항, 中 경제지표 악화 등 신흥시장 불안 지속, 스코틀랜드 사태 이후 지역 분리주의 움직임 확산, 글로벌 성장둔화 우려 및 불균등한 회복세 등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내수회복 부진 속에 대중 수출 감소 및 엔저 리스크에 따른 수출회복 우려도 증대되고 있어 국내 경기 향방 및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원화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해외환율의 조정 여지, 韓 대외신인도 개선 및 달러화 공급우위 등은 원화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원/달러의 전고점(1,080원대) 테스트 여부에 주목하는 가운데 반락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미국과 유로존의 실업률 추이



주 : 해당월의 실업률과 08.1월 실업률과의 격차  
자료 : Bloomberg



### 주식시장의 상승 모멘텀은 당분간 약화될 전망



“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높고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여 업종과 종목 선별에 유의할 필요”

최근 국내 증시는 미국, 일본, 중국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특히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과 현대차 그룹의 높은 가격의 한전 부지 매입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 미국의 저금리 정책 기조는 유지되었지만 중국과 유럽의 경기모멘텀 둔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6,90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하며 지난 3월 이후 처음 순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10월 국내 증시는 ECB의 통화완화정책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정책효과가 재반영될 수 있는 시점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미국 중간선거 이전

#### MSCI 국내증시 12개월 예상 PBR



자료 : Datastream, 하나대투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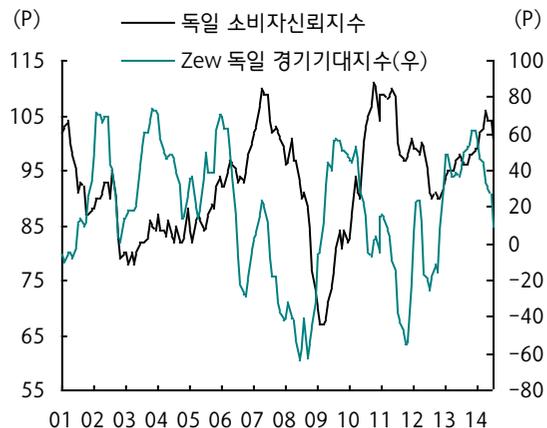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대형 수출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해 상승모멘텀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변동성이 높고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여, 업종과 종목 선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선진국 증시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

선진국 증시는 ECB의 금리 인하 결정으로 상승하였으나 FOMC 이후 성장 우려가 다시 제기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상대적으로 소비심리 상승 등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 완화, ECB의 통화완화 기조 등으로 유동성 환경은 우호적이나 펀더멘털의 개선은 더딘 편이다.

10월 미국 증시는 경기회복 지속 등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적완화 종료 이슈와 11월 중간선거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럽은 경기 하방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일본은 완만한 경기 회복세는 지속되나 수출 증가율 둔화 및 3%대의 소비자물가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유로존 경기기대지수 및 물가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 신흥국 증시는 선진국 증시와의 벨류에이션 격차 감소로 투자 매력도 하락이 예상

신흥국 증시는 ECB의 통화정책회의, 미국 연준의 FOMC 등 선진국 중앙은행의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하였다. 이후 중국 성장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 추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중국 증시는 PMI 제조업지수 상승에도 부동산 가격 둔화 등 자국 내 경기 하방 압력 부각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월초부터 이어지는 국경절 소비에 대한 기대와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과 같은 경기부양 기대는 긍정적이다.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는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지속에도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하락 반전했으며, 견고한 수출증가율과 모디 총리의 투자 유인 정책 등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은 지속될 전망이다. 브라질은 경상수지 적자 지속과 높은 소비자 물가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 기대에 따라 당분간 변동성 높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수입 둔화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서방의 제재 확대에 의한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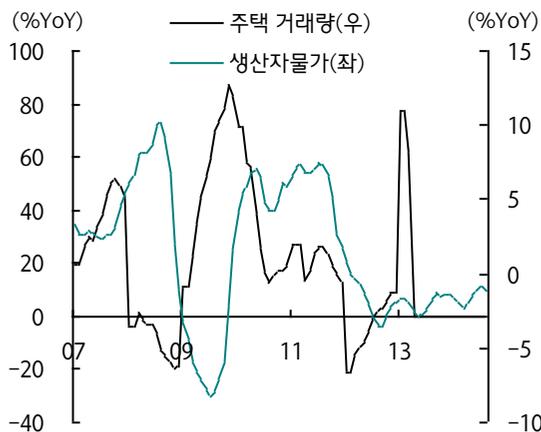
### 원자재는 낙폭과대로 기술적 반동이 예상되며 리츠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

원자재 시장은 가파른 달러 강세로 저가 매수했던 자금이 매도로 전환되면서 원자재 지수가 약세를 보였다. 미국 리츠 지수 또한 부동산지표 둔화와 양적완화 종료 우려로 인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원자재 시장은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단기 반동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할 수 있으나 달러강세가 기초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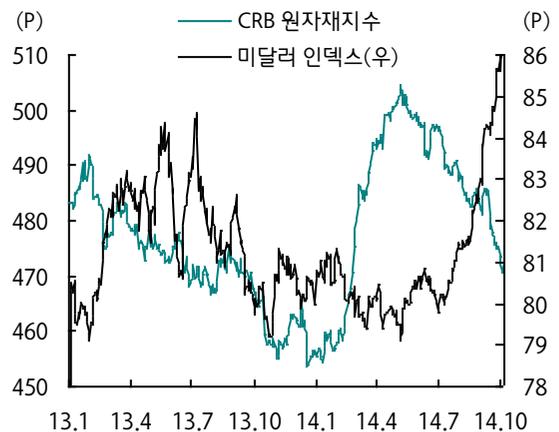
한편 미국 리츠는 양적완화 종료를 앞두고 금리인상 우려가 높아질 수 있으나, 미국 연준이 경기회복세를 확인하기 전까지 금리인상 시기를 늦출 것으로 예상되 반등할 것으로 보여,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중국 부동산 냉각과 디플레이 압력



자료 : CEIC, 하나대투증권

### 미달러 지수 및 원자재 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 금융사 재직 B씨, 높은 노후생활비 대비 순금융자산 확대 요구

금융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B씨(49세)는 60세에 은퇴하고 85세까지 생존하며, 은퇴 후 매월 약 500만원의 노후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B씨가 11년 후 필요한 노후 생활비는 매월 약 656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B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월 16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1억 5,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령한 퇴직금을 60세부터 85세까지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매월 68.2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연금은 연금펀드에 가입하고 있으며, 은퇴 후 매월 83.8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B씨는 현재 13억원 규모의 순실물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순금융자산은 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B씨는 순실물자산이 40대 평균인 대비 많은 편이며, 순금융자산도 적진 않으나 필요 노후 생활비가 높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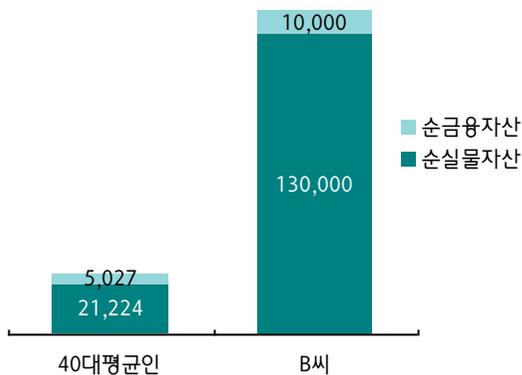
을 감안하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투자 가능한 순금융자산의 비중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필요 생활비에서 차감하면 은퇴 후 월 부족자금은 344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85세까지 필요한 월 부족자금 총액의 현재가치를 합산하면 약 4억 2,182만원이 된다.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순금융자산 1억원과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액 3억원을 합산하여 운용할 경우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약 5.96%의 수익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안정추구형 전략의 목표 수익률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진다.

B씨는 40대 평균에 비해 순실물자산 및 순금융자산 모두 많으며 노후 준비 기간도 짧지 않은 편이다. 다만 필요 노후 생활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순금융자산을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운용이 수반된다면 원활한 노후 준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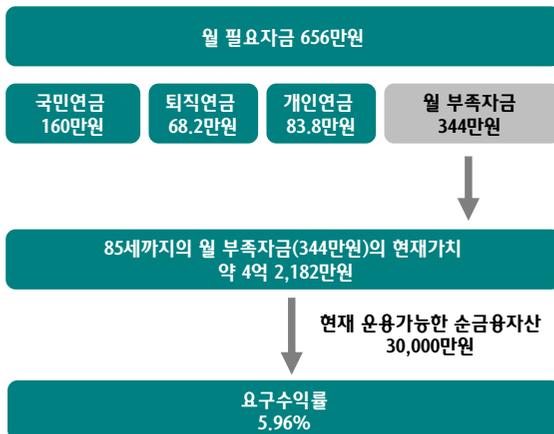
### 40대 평균인과 B씨의 재무상태 비교

(만원)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B씨의 노후준비를 위한 요구수익률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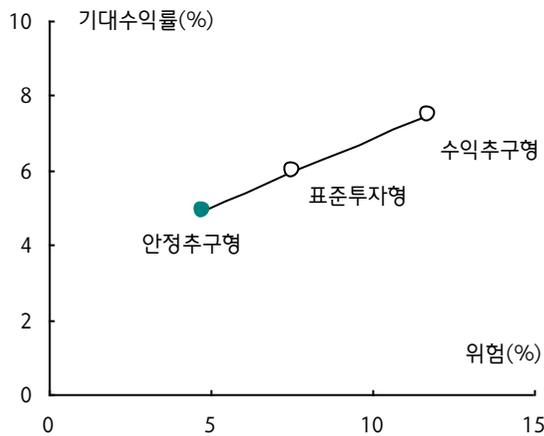
## 금융자산은 수익성보다 안정성 중심의 배분 전략이 유효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할 때 투자성향은 수익추구형, 표준투자형, 안정추구형 등으로 분류된다. B씨가 현 상태로 노후 준비를 유지해나갈 경우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수익률은 5.96%로 계산되었는데, 앞선 투자성향을 고려하면 B씨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10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투자비중은 국내주식 8.0%, 국내채권 22.5%, 해외채권 5.0%, 대안형자산 37.0%, 현금성자산 27.5%로 설정하였다.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며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투자 유형인 안정추구형은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나,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채권 및 대안형자산에 투자하며, 수익추구를 위해 주식에도 일부 투자한다.

안정추구형 전략은 채권과 같은 안정형 위주의 상품으로 운영되는데, 국내 채권의 경우 정부의 경기부양 공조 요구 지속과 엔저 대응을 위해 4분기에 기준금리가 한차례 더 인하될 것으로 보여 시장금리도 하락세가 예상되며, 인하 후에는 추가 인하기대 형성 전까지 횡보 흐름이 예상된다. 해외 채권은 FOMC 경계감 등으로 상승했던 주요국 금리가 소폭의 기술적 되돌림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브라질은 대선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주식은 ECB의 통화완화 정책 및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정책효과가 재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높은 변동성 및 종목별 차별화 심화가 예상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중위험형 및 구조화 상품 등의 대안형 자산 및 현금성자산 비중 또한 상당 부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투자성향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자료 : 하나대투증권

###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비중

(단위 : %)

자산구분	안정추구형	표준투자형	수익추구형
국내주식	8.0(-2.0)	12.0(-1.0)	25.0(-2.5)
선진국주식	-	7.0(-0.5)	20.0
이머징주식	-	6.0(-1.0)	15.0(-2.5)
국내채권	22.5	12.5	5.0
해외채권	5.0	10.0	7.5
대안형	37.0(+2.0)	37.5(+2.5)	19.5
현금성	27.5	15.0	8.0(+5.0)

자료 : 하나대투증권

## 투자상품은 국고채 및 채권형 펀드 등 안정형 위주 상품으로 구성

10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는 전월 대비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대안형 비중을 확대하여 시장 변동성 확대를 방어하며, 해외주식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포트폴리오의 8.0%를 차지하는 국내주식은 일등기업 중심의 장기투자 원칙을 중시하는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주식) A, 배당수익률이 높고 구조적 성장가치와 내재가치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트러스톤장기고배당(주식) A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22.5%를 투자하는 국내 채권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국내 공공물가 인상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잠재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물가연동국고채(13-04), 우량 회사채에 60%, 기업어음 등에 나머지를 투자하는 정통 회사채 펀드인 흥국멀티플레이4(채권) C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5.0%를 투자하는 해외 채권은 미국 하

이일드 채권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자본수익을 함께 추구하는 미래에셋노무라미국하이일드(채권-재간접) A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37.5%를 투자하는 대안형 중 10%를 차지하는 중위험형 상품은 국내주식을 중심으로 롱숏전략, 공모주/이벤트 활용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유리트리플알파(주식혼합) A에 투자한다. 또한 10.0%를 차지하는 혼합형 상품은 채권의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적극적인 주식 운용을 통해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하이실적포커스30(채권혼합) A에 투자하며, 나머지 15.0%를 차지하는 구조화상품은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양방향 원금보장형 ELS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하나UBS 신중MMF(S-26호) C에 27.5%를 투자한다.

###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

구분	자산	유형	상품명	운용사/자문사	비중	투자기간	목표수익률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국내주식	성장형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주식) A	에셋플러스	3.0%	6개월	8%	
		가치(배당형)	트러스톤장기고배당(주식) A	트러스톤	5.0%	3개월	5%	
	채권	국내	물가연동국고채(13-04)	-	10.0%	9년	연 4%	
			흥국멀티플레이4(채권) C	흥국	12.5%	1년	3%	
	대안형	해외	미래에셋노무라미국하이일드(채권-재간접) A	미래에셋	5.0%	6개월	3%	
		중위험형	유리트리플알파(주식혼합) A	유리	10.0%	6개월	3%	
		혼합형	하이실적포커스30(채권혼합) A	하이	10.0%	6개월	4%	
	현금성	-	구조화	양방향 원금보장형	하나대투	17.0%	1년	연4%
			하나UBS 신중 MMF(S-26호) C	하나UBS	27.5%	단기	연2.1%	
	합계					100.0%		
개인연금	개인연금펀드에 월 30만원씩 납입							

주 : 1)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안정추구형 상품 포트폴리오를 의미  
 2) 유형별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위 자산배분의 정확성 및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바람  
 자료 : 하나대투증권



### 글로벌 300대 연기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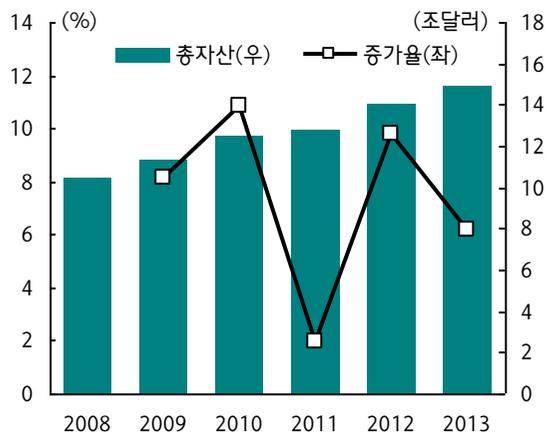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글로벌 300대 연기금의 총자산 규모는 15조 달러에 육박, 향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응하여 대체자산 투자를 확대할 필요”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Towers Watson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세계 300대 연기금의 자산규모는 2012년 대비 6.2% 증가하면서 15조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글로벌 연기금(미국, 일본, 영국 등 전세계 14개 주요국의 연기금)의 47%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글로벌 300대 연기금의 지역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연기금이 연평균 16%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유럽 지역의 연기금이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북미와 아시아 지역 연기금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6%, 5%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 300대 연기금의 총자산 추이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연기금들이 전체 자산의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일본의 연기금들이 1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국부펀드 규모는 1.2조 달러로 지난 10년간 전세계 연기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네덜란드 연기금의 비중은 7%로 3위, 노르웨이와 캐나다의 연기금 비중은 약 6% 수준으로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하였다.

글로벌 300대 연기금에 편입되어 있는 연기금 숫자를 기준으로 미국은 2013년 기준으로 126개가 포함되어 있어 개별 국가 중에 절대적으로 많은 수의 연기금이 대형 펀드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영국(26개), 캐나다(19개), 호주(16개), 일본(14개), 네덜란드(13개) 순으로 많은 수의 연기금이 300대 연기금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5년간 글로벌 300대 연기금에 새롭게 편입된 연기금은 38개로 이 가운데 3개가 호주의 연기금이었으며 한국, 러시아, 폴란드, 콜롬비아, 캐나다에서도 각각 2개의 연기금이 신규 편입되었다. 반면 동 기간 중 미국의 연기금 가운데 12개가 300대 연기금에서 제외되었다.

300대 연기금의 제도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DB형 펀드가 전체 자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 300대 연기금의 지역별 분포

국가	비중	국가	비중
미국	36%	스웨덴	2%
일본	13%	덴마크	2%
네덜란드	7%	독일	2%
노르웨이	6%	스위스	2%
캐나다	6%	말레이시아	1%
영국	5%	중국	1%
호주	3%	싱가포르	1%
한국	3%	기타	10%

| 주 : 자산규모 기준

DC형이 21.0%, 준비금(Reserve Fund)이 11.6%, DB형과 DC형의 혼합 형태인 하이브리드형이 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B형 펀드의 비중은 지난 2008년(75%) 대비 상당히 하락하였는데 2013년 중에도 DB형 연기금의 자산규모는 2.6% 증가하는 데 그쳐 DC형(9.4%), 하이브리드형(8.2%) 대비 성장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다수의 연기금들이 적립금 운용 부담으로 인해 DB형에서 DC형으로 이 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어서 300대 연기금의 성격 별 분포를 살펴보면 300개 연기금 가운데 국부펀드는 27개에 불과하나 이들 자산 규모는 총 4.2조 달러로 전체 자산의 무려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3개의 공공기관 연기금의 자산 규모는 5.8조 달러로 전체 자산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기업형 연기금이 19%, 민간 연기금이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위 20대 연기금의 자산운용 현황 분석을 통해 글로벌 연기금의 자산운용 트렌드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42.7%의 자산이 주식을 통해 운용되고 있으며 채권 자산의 비중은 4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 간 양적 완화 기조와 이에 따른 시장의 자금 유입 확대로 주식시장이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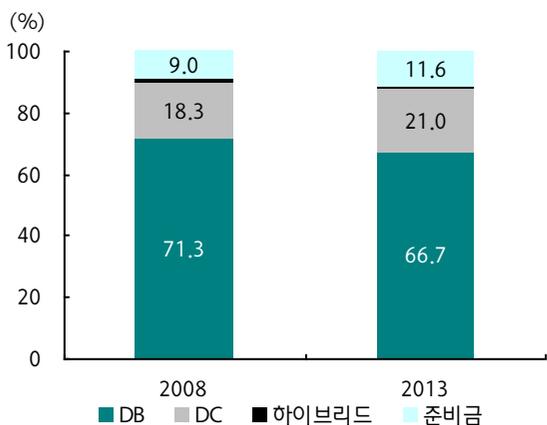
상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연기금들이 자산 배분에 있어 주식 비중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기금 설정이 오래되고 대형인 펀드일수록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식보다는 대체투자 등 다른 투자자산의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Towers Watson에서는 향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글로벌 연기금의 높은 자산 성장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는 개별 연기금의 자산운용 역량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주식,채권과 투자 상관 관계가 낮고 장기 안정적인 고수익 추구가 가능한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노력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글로벌 300대 연기금 가운데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도 최근 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의 자산운용에서 벗어나 대체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대체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 시스템 등 제반 인프라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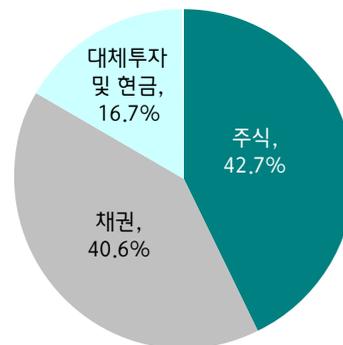
( "P&I/TW Top 300 Pension Funds", Towers Watson, 2014.9)

### 300대 연기금의 유형별 비중



| 주 : 자산규모 기준

### 20대 연기금의 자산운용 현황



| 주 : 2023년 기준

“**퇴직연금시장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가입자 별 금리 등 상품거래조건  
차별이나 위험자산 편입 관련  
불합리한 제한조항을 완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운용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동 개정은 그동안 업계에서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운용관행들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입자에 대한 금리차별이 금지되고 상품제공 수수료 부과 또한 금지될 예정이다.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들은 해당 기관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면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의 가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동일한 금융상품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품 제공을 기피하거나 차별해 왔다. 여기서 차별은 자신의 가입자와 상품제공 금리를 차등하거나 상품제공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자신의 가입자와 상품제공 금리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방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금리를 공시하고 공시금리에 따른 상품 제공이 의무화된다.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금융상품별 수익률을 사후 공시하고 있으나, 상품 제공 전에 사전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금리가 적용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사업자가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원리금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월 공시하고, 해당 상품을 신규로 편입하는 모든 가입자(타사고객 포함)에게 공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위험자산 투자한도 준수기준의 합리화를 추진하였다. 현재는 운용방법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된 경우 편입 부적격등급 증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여 추후 신용개선 등의 가능성이 있어도 즉시 매각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까지의 운용 방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현재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차기 운용 지시 시점에서 위험자산 비율을 한도 이내로 조정하도록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시장가치 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형식적인 비율규제 준수보다는 가입자 이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파생결합사채 편입요건을 명확화하여 그동안 퇴직연금 편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던 파생결합사채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같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으로 같은 상품인데도 가입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금리를 차별하는 행위 등이 빈번했던 퇴직연금 시장의 잘못된 영업 관행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2014.9 )



###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



“저소득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필요

최근 보험연구원에서는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연금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서는 현재 저소득계층의 사적연금 가입 실태를 점검하고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의 저소득계층 관련 연금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내 연금정책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는 저소득계층인 소득 1, 2분 위의 사적연금 보유율은 각각 1.5%, 13.3%에 불과하며 2014년 6월 기준으로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1.1%, 20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가입율은 1.2%로 나타나는 등 저소득 계층의 사적연금 가입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이는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자금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선진국과 대조적인 실태로서 OECD 국가들의 경우 사용자 운영자금과 기여금을 보조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사적연금제도를 의무화해 저소득계층의 사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내에서도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위해 저소득층중심의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먼저 사적연금 가입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국민연금을 가입한 저소득계층(소득2분위)이 개인연금을 가입할 경우 매월 10만원의 보조금 지급만으로도 소득 2분위의 31.2%가 소득 3분위로 상향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최소한의 운용수익률을 보증하고 재정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재원 마련을 위한 교육 IRA제도, 추가적인 연금소득공제(catch up plan) 등에 대해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 보험연구원, 2014.10 )

###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

정책 방향	세부 내용
보조금 지원	저소득층이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연금 가입 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보완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보증 및 재정지원(현재 3년) 지속
교육 IRA제도 도입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노후대비와 자녀교육비 재원 마련을 위한 교육 IRA제도 도입
추가기여제도 도입	저소득 베이비부머의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도입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투자교육 강화,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 맞춤형 연금상품 개발 등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6276호 (2014.9.23 ~ 2015.9.22)



# 하나UBS 행복 knowhow 연금증권자투자신탁[재간접형]

## [행복이벤트]

### [대상펀드]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증권자 모든 펀드 (4면 참조)

### [대상고객]

대상펀드에 대한 계좌이체 또는 신규 적립식으로 가입한 개인고객  
※ 추첨일 현재 유지계좌에 한하며, 조건은 아래 참조

### [대상기간]

2014년 9월25일 ~ 12월19일  
(단, 12월19일 펀드 가입 또는 계좌이체에 한함, 매입 체결 기준)

### [추첨 및 당첨발표]

12월 26일(금) 가입 판매사를 통해 개별통보

### [지급방법]

가입 판매사(지점)를 통해 발송

**대상 1.** 거치식 및 계좌이체 1,000만원당 1매의 추첨권 제공  
예시 : 3,300만원 계좌이체시 추첨권 3매 제공

**대상 2.** 적립식 월 30만원 이상(자동이체 3년 이상) 추첨권 1매 제공

### 추첨 사은품

- (1) 1 등 : 3명 (100만원 상당 하나투어 여행상품권)
  - (2) 2 등 : 5명 (50만원 상당 아이패드미니 16G wifi전용)
  - (3) 3 등 : 7명 (20만원 상당 차량용 블랙박스)
  - (4) 4 등 : 70명 (2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 추첨권은 대상 1 및 2의 기준 충족시 각각 지급함  
※ 1, 2, 3등의 제세공과금은 하나UBS자산운용에서 부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마케팅정보제공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행복이벤트의 대상이 됩니다.



판매회사 하나은행 KEB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운용회사 하나UBS 자산

## "평균 연령 80세 시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투자 knowhow를 자랑하는 하나UBS, 그리고 행복 knowhow가 드리는 행복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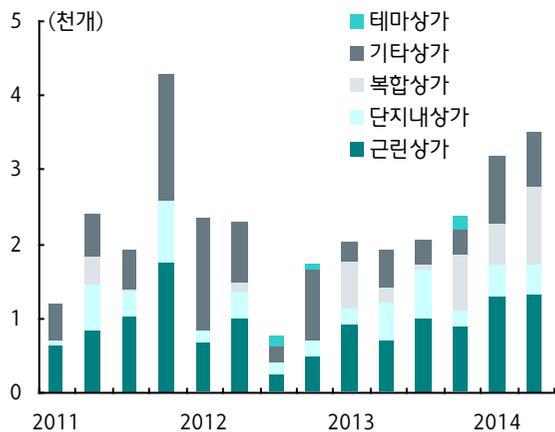
하나UBS 행복knowhow 연금펀드는 연령대별 예상 은퇴시점과 투자성향을 고려한 자산배분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한 맞춤형 펀드입니다. 펀드 내에서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은퇴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스마트하게 위험자산을 축소하여 안정적인 위험관리와 꾸준한 성과를 추구합니다.

“상가, 중소형 오피스 위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 지속”

“상가는 고분양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 오피스는 공실 증가에 유의할 필요”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에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면서 안정적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연이은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소폭 회복되고 최근 주택시장의 회복세는 실수요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금융위기 이후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19%나 하락하는 등 투자 측면에서는 주택시장의 여건이 그리 양호하지만은 않다.

상가 유형별 분양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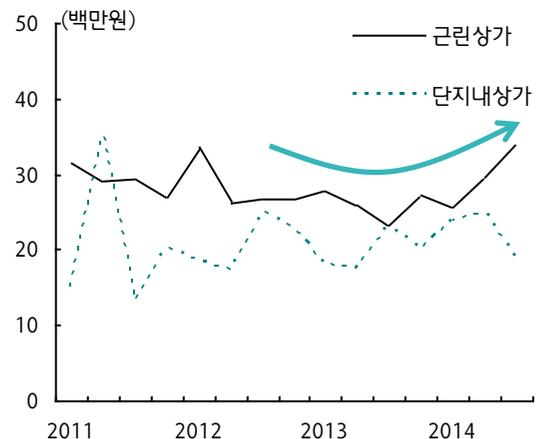


자료 : 부동산114

국내의 대표적 수익형 부동산은 상가이다. 4~5% 수준의 안정적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고 입지에 따라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도 있다. 적게는 수천 만원부터 수십 억원에 이르기까지 투자자금 규모별로 물건이 다양하다는 장점도 있다. 최근 모 신문사에서 부동산 PB 25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80%가 하반기 유망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가를 꼽았다.

상가 시장 내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근린상가이다. 공실률이 비교적 낮은데다 업종 제한이 적어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전국 근린상가의 3.3㎡당 분양가는 2013년 3분기 2,338만원에서 올해 3분기에는 3,411만원까지 상승하였다. 비교적 저렴하고 안정적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단지 내 상가도 상가 시장의 스테디셀러이다. 슈퍼마켓, 음식점, 학원 등 생활밀착형 중심으로 업종 제한이 있지만 경기에 비교적 덜 민감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아파트 입지에 따라 수요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기 있는 LH상가의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의 비중이 2012년 155%, 2013년 163%, 2014년 7월 180%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상가 3.3㎡당 분양가



자료 : 부동산114

상가 인기가 지속되면서 상가 분양물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2/4분기 전국에서 분양된 상가는 3,489개로 2011년 4/4분기 4,281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2년 3/4분기 분양건수가 1,000개 이하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린상가와 단지 내 상가가 이러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상가 인기가 높아지면서 행복도시, 판교 등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고분양가로 상가 투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개발업체에서 인기가 높은 1층 분양가를 높여 나머지 층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내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상가에 투자할 때는無理하게 시세 차익을 노리기 보다는 적정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희망 분양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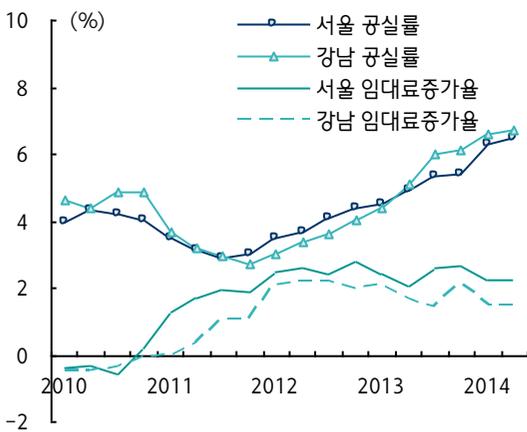
중소형 오피스는 상가와 함께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최근 몇 년간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강남 등 인기 지역의 50억 이하 물건은 대부분 소진되었으며 강북 등으로 투자영역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 빌딩매매 정보회사인 알코리아에셋에 따르면 강남의 중소형 빌딩(300억 원 미만) 거래금액은 올해 상반기

6,000억 원 가량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다.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오피스 투자의 부담 요인이다. 서울 및 강남의 오피스 공실률은 2011년 말 각각 3.0%, 2.7%에 불과했으나 2014년 2/4분기에는 6.5%, 6.7%까지 상승했다. 임차기업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임대료 상승률도 2012년 이후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렌트 프리(임대계약 중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경우) 임대료 할인을 감안하면 실제 임대료는 상승세가 더 둔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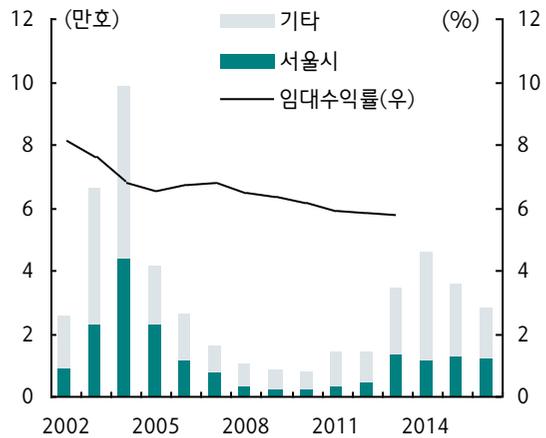
공급물량 부담으로 시장 조정을 겪고 있는 오피스텔 시장은 당분간 추가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 투자심리가 다소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최근 몇 년간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실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역세권, 대학가 등 비교적 임대수요가 풍부한 곳 위주로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투룸 및 쓰리룸, 테라스형 오피스텔 등 수요자의 시선을 모으기 위한 상품 차별화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오피스 공실률 및 임대료 증가율



자료 : 부동산114

전국 오피스텔 공급 및 임대수익률



자료 : 부동산114

## 일교차 심한 환절기의 건강 예방 및 관리

### 환절기 건강 관리법

낮과 밤의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가 나 일교차가 큰 가을의 환절기는 신체 저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몸 전체의 면역력이 약해진다. 또한 건조한 날씨와 찬 공기로 인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다. 감기는 쉽게 낫는 질병이지만,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하면 폐렴, 중이염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우리 몸이 고생할 수 있다.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공공장소나 집단 생활의 외출을 줄이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청결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땀이 마르면 체온도 함께 내려가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땀을 자주 닦아주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며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에 대비해 여분의 겉옷을 챙겨 다니는 것이 좋다.

감기와 비슷한 천식의 경우, 집 먼지 진드기가 가장 큰 원인인데 사람에게서 떨어진 비듬을 먹고 살며, 카펫, 소파, 침대 매트리스 등에서 주로 번식한다. 집 먼지 진드기는 가을에 활동이 가장 왕성하므로 집안 먼지를 자주 털어내고 주기적으로 가구를 청소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칼칼한 목에는 생강차가 제격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거나 침을 삼킬 때 따끔따끔 아픈 경험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따듯한 물 마시기 인데, 따듯한 물과 더불어 증상을 완화시키는 다양한 감기 예방책들이 있어 소개를 해볼까 한다.

맵고 알싸한 향이 나는 ‘생강’은 목의 통증을 줄여주고 감기 예방에 탁월한 식품이다. 따듯한 생강차의 매운 성분이 감기를 예방해주고, 기침하는 것을 치료한

다. 생강차에 꿀을 더해 마시면 더욱 효과적이며, 소금물을 더해 양치질을 하면 목의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생강은 해열 성분이 있어 몸의 열을 내려주고, 발한 작용이 함께 있어 생리통이 심한 여성에게도 좋다. 하지만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치질, 십이지장궤양 등의 질환과 열을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압이 높고 불면증이 심한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 환절기 면역력 높이는 음식

환절기 큰 기온차이로 생체 리듬이 불안해진 우리 몸을 위해 면역력 강화를 위한 성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C’다. 어떠한 음식들이 비타민C가 풍부하고 환절기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블루베리 : 비타민C, 비타민E 등 천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지방의 연소를 돕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며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
2. 유자 : 비타민C가 레몬보다 3배나 많이 들어있어 감기와 피부미용에 좋고, 피로를 방지하는 유기산이 많이 들어 있다.
3. 브로콜리 : 비타민C가 풍부해서 하루 100g을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다. 오렌지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C가 강화되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



생강



블루베리



유자



브로콜리

### 가을 우울증?

'고독의 계절'이라고도 불리는 쌀쌀한 가을, 이유 없는 우울함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더운 여름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면역력이 약해져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정서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해져 쉽게 무기력해지는데 이를 '가을 우울증'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을 우울증은 뇌 신경전달물질인 세르토닌 수치가 낮아져 느끼게 되는데, 이를 가장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햇빛을 쬐는 것이다.

별을 쬐면 세르토닌 수치가 높아져 낮에 20~30분 정도 산책을 하면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된다. 또한 비타민D, 비타민B6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세르토닌 분비를 도와 가을우울증 또한 예방할 수 있다.

#### 비타민이 함유된 음식

비타민 D가 함유된 음식	비타민 B6가 함유된 음식
연어 등 등푸른 생선, 말린표고버섯, 참치 등	마늘, 견과류, 통곡물류, 콩류 등

### 남들보다 얼굴이 잘 붉어진다면 '안면홍조증'

환절기가 되면 남들보다 유독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안면홍조' 때문인데, 특히 30대 이상 여성에게 자주 나타나고 갱년기의 대표 질환으로 꼽히기도 한다.

안면홍조증은 피부 내 모세혈관이 쉽게 확장되어 생기는 만성 피부혈관 질환이다. 증상이 심하면 피부 표면에 늘어난 실핏줄들이 보이는 모세혈관확장증을 동반하기도 하며, 코가 만성적으로 붉은 것도 안면홍조증의 일종이다.

이러한 안면홍조증은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 또한 피부가 남들보다 하얀 사람들에게도 잘 나타난다.

안면홍조증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물치료를 하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한다. 하지만 안면홍조증은 재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여드름으로 인한 붉은 자국이 안면홍조증일까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여드름의 경우 염증으로 인한 화학 반응들이 혈관을 늘어나게 하여 혈액이 몰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를 받아 붉은 자국을 제거하면 된다.

### 알레르기 비염 주의보

환절기인 9~10월에 찾아오는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은 알레르기 비염의 3대 증상이다. 비염은 코 속 점막의 염증성 질환으로서, 콧속으로 흡입된 알레르기 물질이 점막을 통과해 코를 자극하면서 증상을 유발시킨다. 주로 환절기에 면역력이 약해져 증상이 나타나며, 그로 인해 두통, 눈 가려움, 기침 등으로 확대되어 항상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

알레르기 물질로는 꽃가루, 집 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담배연기, 미세먼지 등이 해당되며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비염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힘든 것은 숨쉬기인데, 호흡이 원활하지 않아 신체 및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통과 목통을 동반할 수 있어 집중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비염 예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1. 자주 손 씻기 : 전염의 예방
2. 적절한 온도, 습도 유지하기
3. 환기를 자주 시켜 집 먼지 제거하기
4. 음주 및 흡연 자제 : 면역력 강화
5.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 : 면역력 강화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

### 하나금융그룹, ‘행복knowhow’ 브랜드 선포

하나금융그룹은 9월 25일 은퇴설계연금 통합브랜드인 "행복knowhow" 선포식 행사를 가졌다. 이는 고객들에게 하나금융그룹 전 계열사에서 공통된 상품과 서비스 표준안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금융업계 최초의 새로운 시도이며, 우선 행복knowhow 브랜드로 4가지 상품을 제시하고 향후 경쟁력 있는 상품을 추가할 예정이다.



### 외환은행, ‘휴면예금 실시간 확인 서비스’ 시행

외환은행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에 부응하고 거래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은행 방문 거래고객 앞 "휴면예금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동 서비스는 은행에 내점하여 거래하는 고객의 신규 거래 및 입출금거래 시 은행직원 단말기의 팝업을 통해 고객 휴면예금 전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준다.



외환은행, 「휴면예금 실시간 확인 서비스」 시행

### 하나은행, ‘하나 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 출시

하나은행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함께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하나 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을 출시했다. 본 상품은 연금 수령자 개인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최고 연 2.3% 금리 및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하나SK카드, ‘모비박스 다달이 출석체크’ 이벤트

하나SK카드사는 모바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모비박스 앱"의 기존 사용 고객 및 신규 고객을 위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하고, "모비박스 다달이 출석체크" 이벤트를 진행한다. 앱을 통해 출석도장을 찍으면 호핀 및 롯데마트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앱 신규가입 시 온라인 쇼핑몰 할인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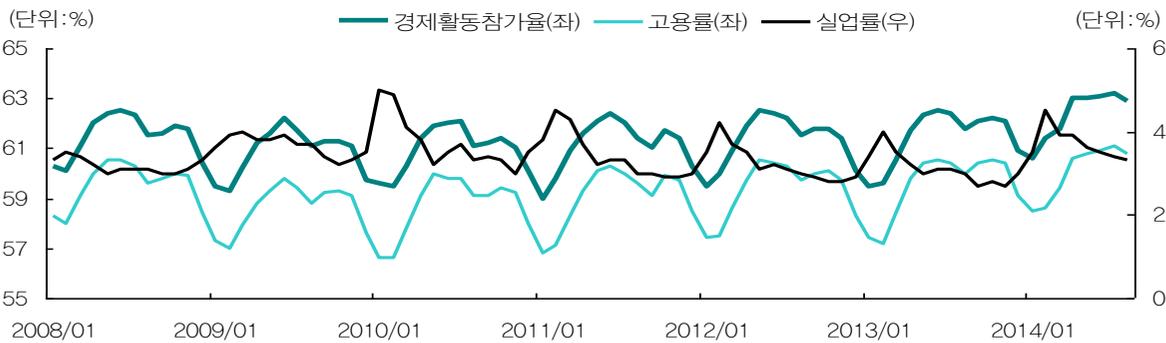


경제 활동

통계청

1. 경제활동 및 고용

연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2009	60.8	6.2	63.1	74.0	79.6	72.1	37.3	58.6	5.4	58.2	71.3	77.7	70.3	36.7
2010	61.0	6.9	63.2	74.6	79.8	72.7	37.0	58.7	6.1	58.2	72.0	77.8	70.9	36.0
2011	61.1	7.6	63.2	74.7	80.1	73.1	37.4	59.1	6.8	58.5	72.2	78.4	71.6	36.5
2012	61.3	7.7	62.8	75.0	80.0	73.8	38.4	59.4	7.0	58.1	72.7	78.3	72.2	37.5
2013	61.5	7.7	61.6	75.4	80.0	74.5	39.1	59.5	6.9	56.8	73.2	78.4	73.1	38.3
2014.1~8	62.4	8.8	63.3	76.2	80.8	75.7	39.7	60.1	7.9	57.4	73.7	78.9	74.0	38.6
2014.7	63.2	9.9	64.6	76.9	80.7	76.1	41.6	61.1	8.9	59.0	74.5	78.9	74.5	40.9
2014.8	62.9	9.3	63.7	76.7	80.7	76.1	41.2	60.8	8.6	58.2	74.3	78.9	74.4	40.5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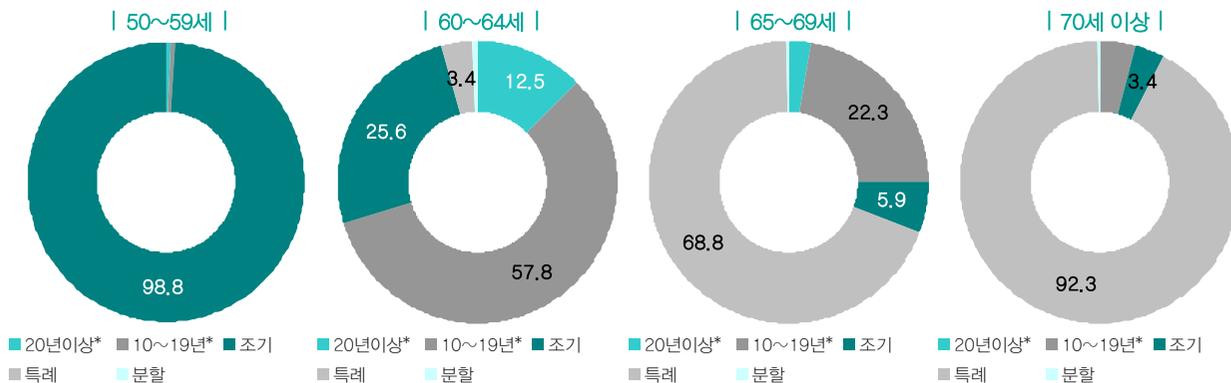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

1. 가입자 현황

(개소, 명)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2008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2009	18,623,845	979,861	9,866,681	8,689,861	1,925,023	6,754,838	36,368	40,935
2010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2011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20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2013	20,744,780	1,290,557	11,935,759	8,514,434	1,962,071	6,552,363	177,569	117,018
2014.6	21,005,119	1,343,987	12,130,975	8,539,523	1,981,835	6,557,688	189,847	144,774

2. 2014년 6월 연령별 노령 연금 급여수급자 현황



주 : \*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의미

## 주택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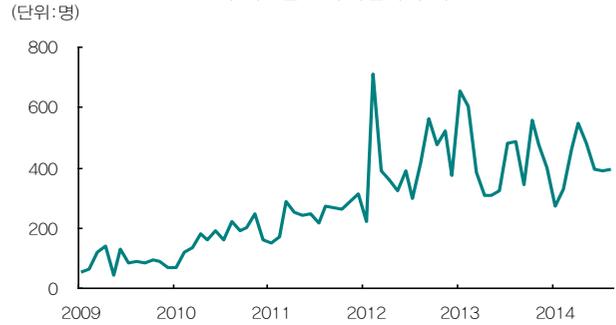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 1. 신규 가입 및 보증공급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신규가입	보증공급액
2009	1,124	17,474
2010	2,016	30,361
2011	2,936	41,000
2012	5,013	69,006
2013	5,296	62,950
2014.7	389	4,329
2014.8	390	4,103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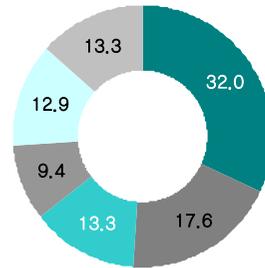


### 2. 2014년 8월 금융기관별 주택연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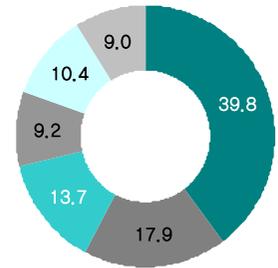
(억원)

은행	보증공급액	잔액
국민은행	1,311	99,424
신한은행	790	44,583
우리은행	544	34,293
하나은행	386	22,930
농협	528	25,867
기타	544	21,177
합계	4,103	249,614

보증공급액 기준



잔액 기준



■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농협 ■ 기타 ■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농협 ■ 기타

## 퇴직연금

노동부, 금융감독원

### 1. 2014년 6월 기준 가입 근로자수 및 사업자 현황, 계약수(말기준)

(명, 건)

구분	근로자				사업자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총계약수	DB형	DC형	기업형IRP
은행	8,185,898	5,514,116	1,490,927	82,465	1,380,822	92,408	124,387	46,629
생명보험	3,155,233	2,846,384	196,033	3,462	217,931	70,479	18,619	1,796
손해보험	1,121,094	1,023,589	61,506	260	58,908	1,937	19,704	228
증권	2,743,794	2,495,246	136,742	389	121,327	3,136	6,565	6,230
근로공단	126,269	-	123,786	403	31,103	-	30,894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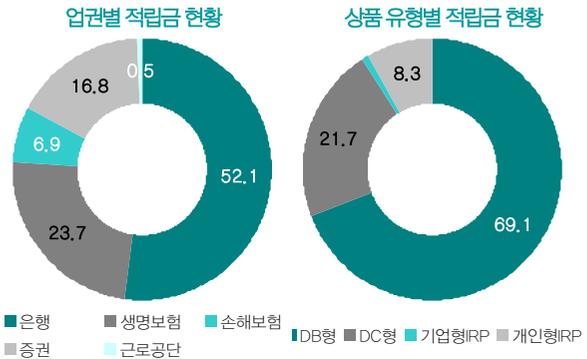
### 2. 제도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개소, %)

구분	합계	DB형 단독 도입		DB, DC 동시도입		DC형 단독도입		기업형IRP 도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0	94,455	34,414	36.4	1,590	1.7	34,904	37.0	23,547	24.9
2011	139,151	53,351	38.3	2,876	2.1	56,476	40.6	26,448	19.0
2012	203,488	68,031	33.4	4,615	2.3	101,086	49.7	29,756	14.6
2013.9	235,716	74,543	31.6	5,549	2.4	123,650	52.5	31,974	13.6
2013.12	254,138	80,107	31.5	6,812	2.7	131,741	51.8	35,478	14.0
2014.3	259,986	80,746	31.1	6,868	2.6	136,963	52.7	35,409	13.6
2014.6	262,373	80,906	30.8	6,886	2.6	142,450	54.3	32,131	12.2

### 3. 2014년 6월 업권별 적립금 현황 및 추이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개인형IRP
합계	875,102	604,869	190,328	6,967	72,938
은행	456,052	274,248	126,038	6,703	49,064
생명보험	207,657	172,171	24,881	206	10,400
손해보험	60,624	51,605	6,817	14	2,188
증권	146,728	106,845	28,592	27	11,265
근로공단	4,040	-	4,000	18	21



### 4. 2014년 6월 적립금 운용현황 및 비중

구분	DB형		DC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형	예적금	291,795	48.2	118,466	62.3	6,099	87.5	42,728	58.5	459,088	52.5	
	금리확정형보험	223,779	37.0	20,554	10.8	149	2.1	8,512	11.7	252,994	28.9	
	금리연동형보험	18,971	3.1	5,687	3.0	62	0.9	2,742	3.8	27,462	3.1	
	국채	462	0.1	1,074	0.6	-	-	1,611	2.2	3,147	0.4	
	통안증권	-	-	-	-	-	-	-	-	-	-	
	기타정부보증채	-	-	-	-	-	-	-	-	-	-	
	원리금보장형ELB	48,949	8.1	2,327	1.2	-	-	2,596	3.6	53,873	6.2	
	RP	9,684	1.6	2,502	1.3	2	0.0	1,450	2.0	13,639	1.6	
	발행 및 표지어음	-	-	158	0.1	-	-	50	0.1	208	0.0	
	기타	-	-	1	0.0	-	-	7	0.0	8	0.0	
원리보장금 소계	593,641	98.1	150,770	79.2	6,312	90.6	59,696	81.8	810,418	92.6		
실적배당형	실적배당형 보험	162	0.0	1,520	0.8	12	0.2	362	0.5	2,055	0.2	
	집합투자증권	주식형	1,055	0.2	127	0.1	1	0.0	95	0.1	1,279	0.1
		혼합형	1,131	0.2	9,349	4.9	15	0.2	1,599	2.2	12,095	1.4
		채권형	4,312	0.7	25,570	13.4	593	8.5	4,149	5.7	34,624	4.0
		재간접	144	0.0	216	0.1	-	-	22	0.0	382	0.0
		부동산/실물/특별	111	0.0	-	-	-	-	-	-	111	0.0
		기타	1,028	0.2	-	-	-	-	-	-	1,028	0.1
	집합투자증권 소계	7,944	1.3	36,782	19.3	621	8.9	6,228	8.5	51,574	5.9	
	직접투자	563	0.1	157	0.1	-	-	348	0.5	1,068	0.1	
	실적배당 소계	8,507	1.4	36,939	19.4	621	8.9	6,575	9.0	52,642	6.0	
대기성 자금	2,721	0.4	2,620	1.4	34	0.5	6,667	9.1	12,042	1.4		
총계	604,869	100.0	190,328	100.0	6,967	100.0	72,938	100.0	875,102	100.0		

### 5. 2014년 6월 금융업권별 적립금액 현황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근로복지공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형	428,574	94.0	197,218	95.0	59,260	97.7	121,460	82.8	3,960	98.0
실적배당형	20,463	4.5	9,599	4.6	1,225	2.0	21,320	14.5	35	0.9
기타	7,015	1.5	840	0.4	193	0.3	3,949	2.7	45	1.1
합계	456,052	100.0	207,657	100.0	60,624	100.0	146,729	100.0	4,040	100.0

주 : 기타는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 등)

하나은행 고객님께만 드리는 특전! 하나컬처클럽의 공연 할인 혜택을 지금 누리보세요.

뮤지컬, 연극



<b>기간</b>	2014.10.11 ~ 2015.01.04	2014.09.06 ~ 2014.11.09	2014.02.01 ~ 2014.11.30	2014.09.19 ~ 오픈런
<b>장소</b>	디큐브아트센터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대학로 브로드웨이아트홀 1관	대학로 틴틴홀
<b>할인</b>	VIP 20%, R 30%, S/A 40% 할인	VIP 20%, R 30%, S/A 40% 할인	최대 67% 할인	최대 67% 할인
<b>기본가</b>	VIP : 130,000원 → 104,000원 R : 110,000원 → 77,000원 S : 80,000원 → 48,000원 A : 60,000원 → 36,000원	VIP : 130,000원 → 104,000원 R : 110,000원 → 77,000원 S : 80,000원 → 48,000원 A : 60,000원 → 36,000원	평일, 주말 조조&심야 30,000원 → 10,000원 주말 30,000원 → 12,000원	평일 30,000원 → 10,000원 주말 30,000원 → 15,000원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공연



<b>기간</b>	2014.09.26 ~ 2014.11.02	2014.10.17 ~ 2015.01.24	2014.10.15 ~ 2014.11.23
<b>장소</b>	윤당아트홀 1관	대학로 한양레퍼토리	대학로 소리아트홀 1관
<b>할인</b>	55% 할인	최대 75% 할인	40% 할인
<b>기본가</b>	R석: 30,000원 → 13,500원 S석: 25,000원 → 11,250원	어린이: 20,000원 → 12,000원 어른: 20,000원 → 5,000원	일반석: 20,000원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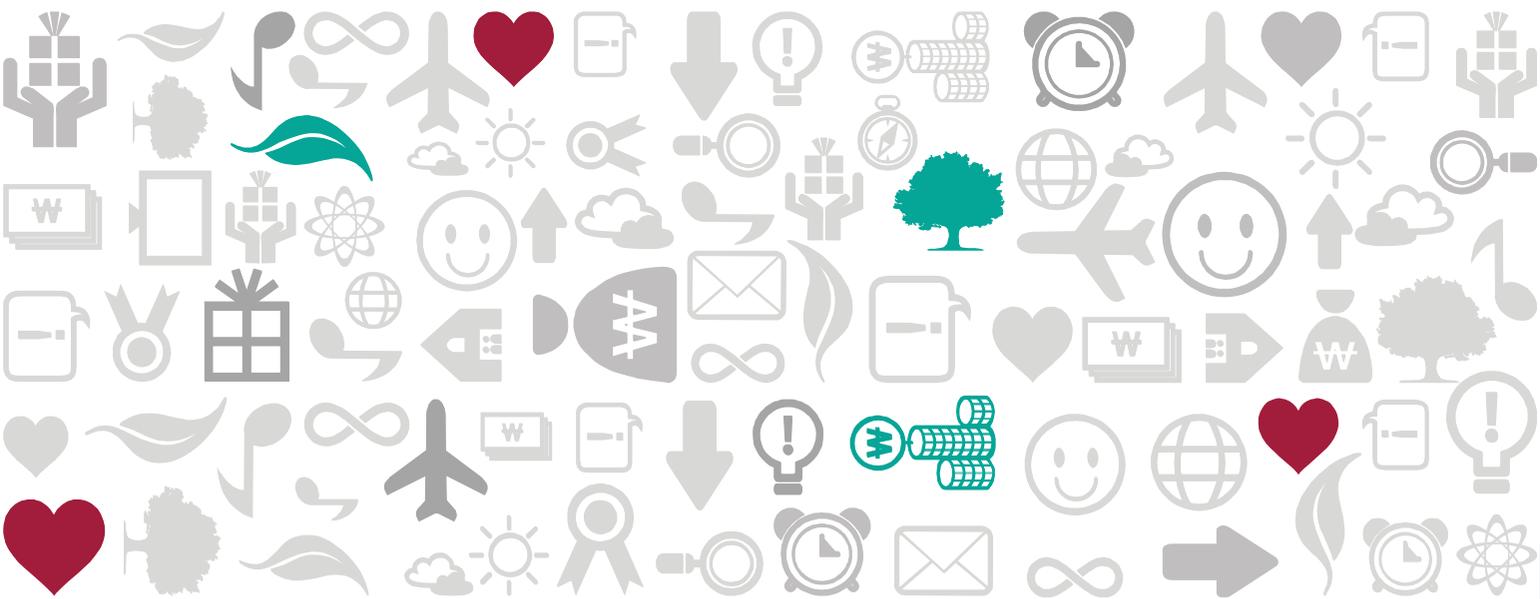
사이트 주소 : 인터넷에서 하나컬처클럽으로 검색하세요.

- 이용 방법 : 인터넷뱅킹 로그인 > 하나컬처클럽 이용동의 > 예매사이트로 이동

## 하나금융그룹 행복디자인 대표전화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02) 2002 - 1147
	퇴직연금부	(02) 3788 - 5454
외환은행	퇴직연금실	(02) 729 - 0806
하나대투증권	연금사업부	(02) 3771 - 7173
하나생명	행복금융프라자	(02) 3709 - 7252

www.hanaif.re.kr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행복가이드 2014.10[No.10]

150-70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 Tel 2002-2200 | Fax 2002-2610